

文대통령 국정철학 담아 적폐청산 개혁의 길 가겠다

국정기획위 국가비전 키워드 '정의·통합' 내세운 까닭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가비전 키워드로 '정의'와 '통합'을 제시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은 두 단어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로 수차례 제시한 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 비전 및 프레임 TF 팀장인 김호기 기획본과 자문위원은 지난 5일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 비전 등에 관한 발제를 하면서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정부'를 국정 비전의 단일안으로 제시했으며,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애초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만든 국정 비전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선대위 기구였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정의와 통합이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하기까지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바탕이 됐다는 게 정치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3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역시 대선 기간인 4월19일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열사들

이념·빈부·지역 격차 완화 특권 없는 촛불혁명 완수 공정사회 구현 의지 담아

의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4·19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자랑할만한 민주혁명이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정의로운 통합으로 미완의 4·19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27일 민주당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토론회 축사에서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에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국민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역시 정의"라며 "정의와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을 바탕으로 대선 전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으로 '정의와 공정' '통합과 소통'으로 꼽았다.

우선 문 대통령에게 '정의와 공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혁명'과 궤를 같이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및 헌정유린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집서를 해제해야 한다. 일제하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다"며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다. 이제 '3불'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또 "그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 쓰는 말 중 하나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한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통합'도 문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무분별한 통합이 아닌 '정의로운 통합'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에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국민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역시 정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자정께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소통도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부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은 유공자 부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인 박용규씨(가운데)를 부축하고 있다. 오른쪽은 아들 박종철씨.



총리는 참전용사에 큰 절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보호 가정을 방문해 6.25 참전용사에게 절하고 있다.

“이념의 정치 청산...애국의 역사 통치에 이용 안해”

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핵심어는 '애국'과 '태극기'

보훈처 위상 장관급 격상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념의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약 12분간 읽은 추념사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애국'이었다. A4 용지 너 장 분량의 추념사에서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22차례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좌우' 진영을 모두 애국의 주제로 아울러 적시하는 탈(脫)이념적 역사인식을 보여줬다. 애국을 마치 보수진영의 전유물인 것처럼 치부해온 사회저변의 관행적 규정을 선을 그으면서,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진보 인사들과 산업화 과정에서 헌신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제공장 여성 노동자 등 평범한 국민도 '애국가'였음을 명시하고 이를 추모와 존중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가였다"는 말로 애국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 추념사 말미에 '순국선열' '호국영령'과 함께 '민주열사'를 나란히 열거했다.

추념사 곳곳에 '태극기'라는 단어가 통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어로 동원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정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다"며 "파독 광부·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사건 등을 지적하는 듯이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태극기가) 새겨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 내외의 옆자리에 지난해 지리 사고로 우측 발목을 잃은 공상군경인 김경열(22)씨와 2년 전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당시 부상을 입은 김정원(26)·하재현(23) 중사 등이 앉아 더욱 눈길을 끌었다. 과거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 옆자리는 주로 4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들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엔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임대빌라에 사는 6·25 참전용사 김몽익(96)씨 자택을 방문, 김씨 부부에게 "국가 유공자님들을 잘 모시겠다. 부축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절을 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잊지 않겠습니다”...광주시·전남도 현충일 추념식

광주시와 전남도는 6일 오전 광주공원 현충탑과 목포 부흥산 현충탑에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광주공원 추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다시부르는 영웅(Roll Call),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위패봉안소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 중에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고 특히, 윤남고(3년) 정소현 양 등 6명의 미래대표 학생들이 30명 호국영령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보는 'Roll Call' 행사는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해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윤 시장은 추념식에 앞서 광주보훈병원을 찾아 병환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했다

목포 부흥산 추념식은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다시 부르는 영웅(Roll Call행사),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로 진행된 전남보훈대상 시상식에서는 상이군경 부문 장흥군 위이언,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고흥군 한영자, 미망인 부문 고흥군 주주엽, 유족 부문 영광군 정광삼, 특별 부문 고흥군 정용운 등 5개 부문의 보훈가족을 시상했다.

전남도는 오는 2018년 하반기까지 전남도립도서관 앞에 전남현충일독립운동기념탑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도 이날 오전 10시 여수교육원 총합탑 앞에서 위패봉안식과 추념식을 열었다. 교육원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위패봉안식에서는 지난해 8월 응급환자 후송 중 총돌사고로 숨진 고(故) 오진석 경감 등 4명의 위패를 안치했다./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	------------	-----------	-----------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